

금요 수필

일하는 즐거움

2017년 겨울, 38년 7개월의 지나긴 교도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인생의 마침표로 여기지만 나에게 그것은 새로운 문을 여는 시작점이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세대에겐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기 때문이었다. 교도관으로 재직하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여간, 나는 수형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일을 했다. 그때 배운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들, 워크넷 활용법,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메커니즘은 훗날 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도둑질과 계집질 말고는 다 배워두면 도움이 된다.” 고행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또 있을까 싶다.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교향 창우회에 나갔을 때였다. 우연히 워크넷에서 버스회사 채용 공고를 보았고 마침, 그 회사 대표가 교향 선배님이었다. “일자리 하나만 마련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간절히 부탁드렸다. 선배님의 대답은 즉답이 아닌 “생각해 보겠네”였지만, 그 말속에 희망의 여지가 있었다. 면접장에서 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할 의지를 보여드렸다. 공무원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야 했다. 많은 회사가 공식 퇴직자들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편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선입견, 높은 노동강도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만 호  
수필가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부회장

버스회사에서의 일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명절과 휴일은 더 바쁜 운수회사사의 특성상 가족과의 시간은 사치였다. 여름휴가는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고, 가족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매일 컴퓨터 화면의 작은 액셀 글씨와 씨름하다 보니 눈도 침침해졌다. 하지만 그 6년은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었다. 일하는 보람과 긍지가 있었다. 삼식이(?)가 아닌 영식님(?)으로 살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 6년 만에 버스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려 했다. 후임자에게 한 달간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막상 쉬려 하니,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도움 요청의 손길이 왔다. 전주에서 김제까지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 아내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운전도 서투르는데 그 먼 길을 매일 오가며, 하루 종일 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달을 그렇게 일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다. 그즈음 전주의 한 일간지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전무님과 메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는 대화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다. “책도 내신 실력이나 우리 신문사에서 정치부장으로 일해주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였다. 과연 내가 기자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전무님은 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고, 알뜰결에 승낙하고 말았다. 어느덧 기자 생활 1년 7개월, 처음에는 기사 쓰는 법을 몰라 애를 많이 먹었다. 전문 기자들을 멘토로 모시고 이것저것 물어가며 배워야 했다. 그런데 돌아해보니 교도관 시절의 경험들이 큰 자산이 되었다.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한 부정적 보다가 나를 때마다 반론을 써서 언론에 기고했던 경험, 총무과에서 10여년간 자발적으로 맡았던 홍보업무,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기자들과의 인연이 모두 현재 나의 기자 생활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분들이 이제는 모두 선임 기자가 되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분들의 존제가 내게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함께 퇴직한 동료들은 탁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낸다. 그들의 선택도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전복도청 기자실에서 지방지와 중앙지의 기사들을 읽으며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소에는 신문을 그리 많이 읽지 않았는데, 이제는 돈을 벌면서 신문을 읽는다. 남들은 도서관에서 여가 넘으며 신문을 훑어보는데, 나는 당당히 기자실에서 신문을 읽는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기사를 쓰고 싶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퇴직 동료들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된다. 일하는 즐거움,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퇴직 후 7년여를 일하며 깨달은 소중한 진리다. 일은 우리를 늙게 하고, 사회와 연결되게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게 만든다. 100세 시대, 우리는 더 오래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더 오래 일하며, 더 오래 배우며, 더 오래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세대가 맞이한 새로운 인생의 고도 발전식이다.

사설

한글과 외래어의 조합

좋은 행사나 정책을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쉬운 우리말로 해야 한다. 명칭을 정할 때부터 쉬운 우리말로 해야 하고 이미 그렇게 썼더라도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칠 때 우리말 실력을 갖대려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으니 더 문제다. 어릴 때부터 우리말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교육을 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손쉬운 우리말을 찾아서 쓰도록 해야 한다. 쉽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을 버리고 어려운 외래어를 끌어다 쓴 사례는 수없이 많다. ‘시니어’는 ‘노인’ 내지 ‘어르신’이고, ‘카운티’는 ‘공동체(주민)’라는 뜻이다. ‘데드스킬’은 의료분야 종사자들은 잘 아는 용어이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굳이 이 단어를 붙이지 않더라도

‘자기혈관 숫자알기 홍보’라는 말로도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사를 알리는 보도자료에 ‘시즌 티켓 오픈’이라고 썼는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입장권 판매 시작’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글로벌 시티’, ‘슬로전’, ‘네마전’, ‘AI’라는 단어도 문제다. ‘글로벌 시티’는 ‘세계적(국제적) 도시’라고 하면 되고, ‘슬로전’은 ‘구호’, ‘테마전’은 ‘주제전’, ‘AI’는 ‘인공지능’이다. ‘일자리’, ‘고용’ 문제와 관련한 행사도 많고 자료도 많다. 그런데 사용된 용어가 외래어(외국어)투성이다. 대표적으로 ‘잡 퀘스트’, ‘잡 모아 페어’이다.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남의 것 빼끼기보다는 우리 것을 잘 다듬어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정찰위성 5호기 목표제도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정찰위성이 목표 제도에 진입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간 11월 2일 오후 2시 23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제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발사체 ‘팔컨’에 실려 정상적으로 발사된 지 14분 만이다. 국방부는 “군은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호기 발사로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해 길게 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SAR의 발을 ‘사’와 EO의 발을 ‘이오’를 합쳐 425(사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1호기는 2023년 12월 발사돼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지난해 4월 발사돼 올해 6월 전력화됐다.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올해 7월 전력화됐고,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호기부터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SAR를 탑재해 보다 정밀한 감시·정찰이 가능하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무료 식품’ 배급에 줄 선 뉴욕 시민들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푸드뱅크 배급소에서 무료 식품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미국 1센트 동전 ‘역사 속으로’



12일(현지 시간) 미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마지막으로 주조된 1센트(페니) 동전 중 27개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센트 동전 생산 비용이 액면가보다 크다며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써 1센트 동전은 생산 232년 만에 그 운명을 다하게 됐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